

IFS 국가 정책 제언 인구 감소와 제조업의 미래

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·인구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조영태 교수



1

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제조업의 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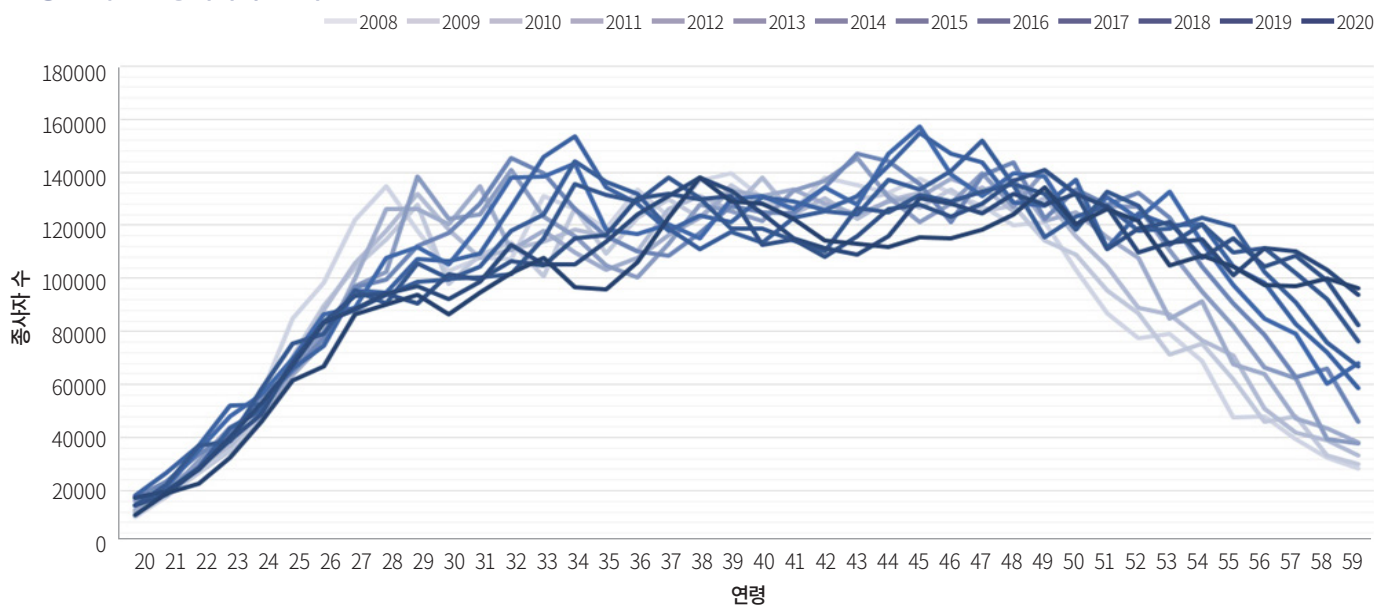
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청년인구 감소 전망

- 한국은 80년대 이래로 대체출산율(TFR 2.1)을 밑도는 저출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~30대의 청년인구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
- 현재의 20대는 각 세에 평균 65만 여 명이나, 앞으로 10년 뒤인 2035년에는 47만 여 명, 20년 뒤인 2045년에는 30만 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. 현재 각 세 평균 70만 여 명인 30대 또한 2035년에 65만 여 명, 2045년에 47만 여 명으로 존재할 것임
- 이렇게 향후 10~20년 간 급격한 청년인구의 감소는 한국의 지속적인 산업 성장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에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

기술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제조업 청년인구 필요

- 지금까지 제조업을 큰 축으로 세계적 수준의 국가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기술혁신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만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·경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음
- 이러한 혁신적이고 희소성 있는 기술의 창조는 혁신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, 즉 청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밖에 없음. 하지만 최근까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, 앞으로 청년인구 규모가 급감함에 따라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 청년은 더욱 줄어들 것이 정해진 미래임

연령별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



2

청년, 중년 종사자의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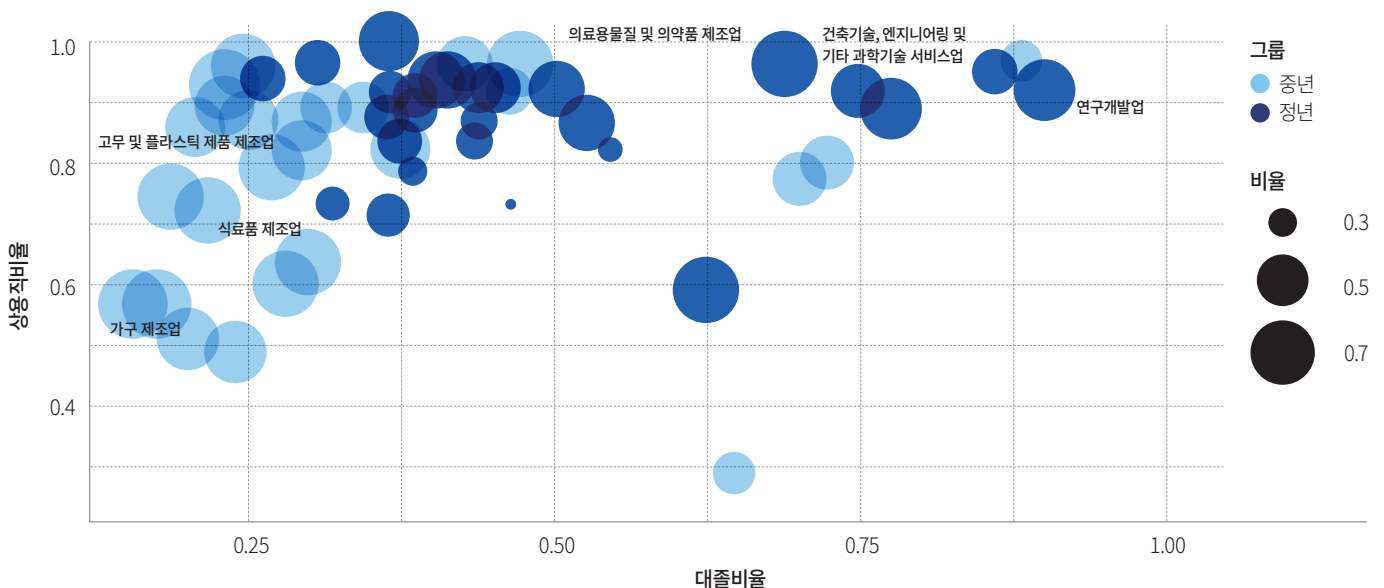
-첨단,일반 제조업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따라-

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첨단제조업· 연구개발업에 집중한 청년인구

-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, 현재 우리나라 청년인구의 약 80%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음
- 그렇다면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인구는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, 40~50대 중년인구와 비교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. X축은 대졸(지식)비율, Y축은 상용직(숙련) 비율로, 산업별로 청년과 중년의 위치와 크기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음
- 파란색으로 나타낸 청년은 전반적으로 대졸과 상용직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상향할수록 해당 산업에서 청년비율 또한 커지는 경향이 뚜렷함

- 반면, 하늘색으로 나타낸 중년은 청년에 비하여 대졸과 상용직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고, 대졸과 상용직 비율이 낮은 산업일수록 중년비율이 큼
- 학력과 숙련 수준으로 산업들을 분류해 보자면, 고학력·고숙련의 첨단 제조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, 저학력·저숙련의 일반제조업으로 나눌 수 있음. 실제로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연구개발업, 가구제조업과 식료품제조업 등 산업들이 그림에서 이와 같은 분류에 부합하는 분포로 나타나고 있음
- 이처럼 고학력을 지닌 청년들은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업 등에 더욱 집중적으로 몰려 있음. 그리고 청년들의 이러한 집중경향은 80%에 달하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처럼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 전망됨

대졸비율, 상용직비율에 따른 청년과 중년의 산업 분포



자료: 지역별 고용조사(KOSIS) 활용

3 미래 제조업과 R&D의 혁신을 이끌 청년인재 필요

■ 중년·외국인력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일반제조업의 미래

- 외국인이 주로 일하는 제조업종 또한 고무 및 플라스틱, 목재 및 나무제품, 가구,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과 같이 저학력·저숙련의 일반제조업에 해당하고 있음
- 앞서 중년인구가 일반제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음을 보았는데, 향후 이들의 은퇴에 따라 이 일반제조업은 점차 인력난에 시달릴 것임. 이때 그 빈자리를 외국인력으로 메꾸어가며 산업을 유지하는 것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저학력·저숙련 특성으로 인해 로봇 등 기술 도입과 해외화(off-shoring)로 대체가 쉬운 일반제조업을 유지하는 것이 첨단·핵심기술 제조업에 집중투자하며 청년인구 감소에도 대응해야 할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

■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기 위해, 미래의 제조업·R&D 혁신을 이끌 청년인재 유치와 양성이 절실히 필요

-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국가 성장 및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서 정치·경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제조업과 R&D에서의 희소하고 혁신적인 기술 창조가 반드시 필요함. 그리고 이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청년인재의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지만 달성될 수 있음
-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도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양성하여야만, 한국의 제조업과 같은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음

대졸비율과 상용직비율로 본 첨단핵심기술 제조업과 일반 제조업 (20~50대 전체)

